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 10,38-42 참조)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집에 모시게 되면 큰일이겠지만 또 이보다 더한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종을 드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급한 일이 많아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베타니아의 그리스도
베르메르 작,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1654)

제1독서 창세 18,1-10

제2독서 콜로 1,24-28

복음 루카 10,38-42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정작 필요한 것

김종섭 토마스 신부 | 교구 가정담당



저는 신학생 때부터 유난히 무엇을 키우거나 기른다는 것, 특히 식물을 못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관상용 선인장도 몇 번이나 말려 죽였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던 제가 사제가 되어 첫 소임지에서 성당 마당에 정말 작은 복숭아 묘목을 심었습니다. 또다시 말려 죽일 텐데도 '반드시 키워서 소출을 내리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상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묘목이 죽지 않고 버티고 버티면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꽃가계를 하는 신자께 거름도 얻어다가 주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겨우 1미터 남짓 자랐을까요? 그 작은 꼬마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제 주먹 크기의 복숭아가 달린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복숭아를 들여다보면서 잘 익으면 주일 미사 때 제대 꽃꽂이 한 쪽에 몰래 올려 두어 봉헌하고, 맛있게 먹으리라는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봉헌하려고 결심한 주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 미사 후 복숭아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범인은 면식범이다!' 미사 오신 분 가운데, 특히 지금 레지오 하시는 분 중에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인가? 아니~ 신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가져가고 말이야~' '내가 제대에 봉헌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것을 말이지? 평일미사 백날 나오면 뭐하노~' 등등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이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노~?' 하고 머리에 '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인데... 마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르타처럼 눈앞에 있는 일에 몰입을 해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 누군가의 '신앙'마저도 제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보고 놓쳐버리기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마르타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말씀을 내려주셨나 봅니다. 무조건 마리아가 옳고 마리아처럼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팍팍해져서 자꾸만 신앙 살기도 그렇게 팍팍하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로움을 잘 못 사용한다면, 그래서 균형을 놓치고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고 풍성하게 자라기를 소망해봅니다.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결실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



교회 안에는 하늘나라의 덕행을 실천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헌생활의 형태는 은수생활, 수도생활, 재속회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주님께서 권하신 덕행인 '복음적 권고'를 그 중심으로 삼습니다. 복음적 권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⑭



농민은 하느님을 닮은 착한 생태사도입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레위기 25, 2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교회의가 제정한 열여덟 번째 해를 맞는 농민 주일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값싼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은 농민들의 살림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대 피해자는 우리 농업, 농민들이고 나아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가장 정직한 대가를 기다리던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도시와의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곤궁한 삶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교우위론에 따라서 값싼 외국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정책을 폈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산물을 별다른 의식 없이 소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고작 24.3퍼센트(2011년 기준)입니다. 이제 하루 한 끼를 온전히 우리 땅에서 소출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멈추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를 감소하고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길입니다(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58항 참조).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요한 15,1)라

는 말씀처럼 농민들은 농부이신 하느님을 닮은 ‘착한 생태사도’입니다. 물질이 모든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되어버린 오늘날 농민들의 성실한 수고와 정직한 노동은 그 자체로써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노동처럼 성실한 수고로움에 기대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일구어가는 농민들은 신앙인들의 귀감입니다. 부디 정직한 열매를 꿈꾸며 생명과 순환의 농법으로 땅에 기대어 사는 농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농민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역시 ‘착한 생태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값싸고 보기 좋은 수입 농산물의 소비를 줄이고 생명의 먹을거리를 기꺼이 애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태적 소비’는 농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농민주일을 맞이하는 농민 여러분과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7월 21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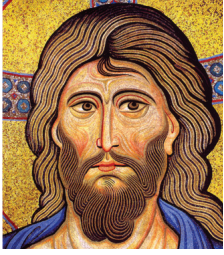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은 교회의 인정을 받은 향구한 생활양식으로 ()과 ()과 ()의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하는 공적 선서로 특징지어진다. ... 봉헌 생활의 신분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와 교회의 선의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944-945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문화홍보실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어째서 불행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인지, 어째서 죄 많은 사람이 편하게 잘 살고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호세 11,8)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선 선행을 행복으로 갚으시고 죄악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거역한 죄는 무엇으로 갚을 치러야 합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주신 분을 배반한 짓값은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탓에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이 아파서 울면 애가 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하고 바라는데, 죄인들의 죽음을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에제 33,11)

우리 사람들은 악인을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원한을 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이 등장하면 죽어 마땅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는 그 극악한 죄인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당신이 우리가 자초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2사무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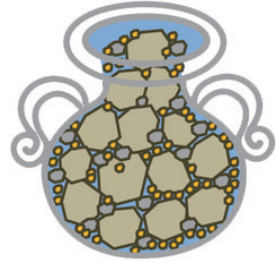
죄인은 남을 위해 희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벌을 받는다면 자기 죄 탓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죄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선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인류가 치러야 할 짓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느님께서선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2코린 5,21)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착하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께서선 자격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덕에 무죄하게 되었으니, 죄인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골로 1,12**



인생의 우선순위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시간 쓰는 법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항아리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고 주먹만한 큰 돌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위까지 돌이 차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항아리를 흔들어가며 큰 돌들 사이로 자갈을 채웠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 아래 있던 모래주머니를 꺼내 모래를 항아리에 부어 큰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득 찼지요?” “글쎄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전자를 들어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었습니다. 물을 다 부은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중 하나가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고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언제든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교수의 대답에 모두들 의아스러워 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큰 돌,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항아리에 집어넣으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7월 22일)

갈릴래아 출신으로 고향 이름이 막달라여서 마리아 막달레나 혹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 불리는 성녀께서는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따르던 분이시다. 마르타와 라자로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성녀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셨다. 1988년에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녀를 ‘사도들의 사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 대건인쇄출판사 증축 준공식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7월 10일(수) 오전 11시 대건인쇄출판사 증축 준공식 및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 성가양로원 축복식



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담당: 김울석 마태오 신부) 소속 성가양로원 축복식이 7월 11일(목) 오후 2시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2013년 성경통독피정

누에마, 이스라엘(산형 6,4)

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에서 교구민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10차에 걸쳐 마련한 성경통독피정이 이미 4차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초청 강사들의 길잡이로 안내를 받고 침묵 중에 성경을 읽어가는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로움을 체험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지 못하셨어도 가능한 차수에 참여하셔서 해당 피정차수 부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차수	피정 날짜	신청 마감
	제 5 차 >>	7월 27 ~ 28일	7월 19일(금)
	제 6 차 >>	8월 31 ~ 9월 1일	8월 23일(금)

장소 _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북구 사수동 133번지) / T. 313-3425~6

회비 _ 1회 5만 원(10회 신청시 45만 원) / 선착순 60명

신청 _ 대구은행 508-10-448845-1 성서사도직(남희정)

문의 _ 대구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cafe.daum.net/biap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4주일(7월 7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입니다.

당첨자 : 이지흥(루시아, 장량), 이효용(미카엘, 인동), 남후섭(아우구스티노, 상인), 전영이(세실리아, 상모), 강은석(도로테아, 송현)

신앙의 재충전 기회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7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7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7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화) 14: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24일(수) 10:00 평화성당
-	-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7월 25일(목) 14:00 삼덕성당

성소 | 피정

청년피정(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1차: 7.29(월)~31(수), 2차: 8.2(금)~4(일)
 제목: 소통, 회비: 3만 8천 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선착순)
 문의: 노데레사, (010)2570-0939

예수회 성소특별 피정
 기간: 8.3(토)~6(화)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성모님과 함께 6일 침묵 치유 피정
 1차: 8.5(월)~10(토), 안양 아론의 집
 2차: 8.11(일)~16(금), 부산 은혜의 집
 강사: 안토니오 신부(요셉빌 신부 후임)
 준비물: 성경, 미사도구, 필기도구
 회비: 38만 원 / 문의: (010)9040-2507

젊은이 빈마음 피정(2박 3일)
 기간: 8.23(금)~25(일), 선착순
 장소: 강원 홍천기도의 집(3만 5천 원)
 대상: 미혼 여성(만 30세 이하)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내적 여정
 기간: 8.16(금)~18(일) 11:00
 주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거룩한 독서(LD) 피정
 1박 2일: 8.6(화)~7(수)
 7박 8일: 8.30(금)~9.6(금)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

교육 | 모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7.19(금) 17:30~21(일)
 4박 5일: 7.15(월) 14:00~19(금)
 8박 9일: 8.12(월) 14:00~20(화)
 애니어그램: 7.13(토) 15:30~14(일)
 문의: 성심수녀회, (031)946-2337~8

젊은이 슈발리에 축제
 기간: 8.9(금)~11(일), 접수시작: 7.22(월)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6만 원)
 문의: (010)6258-6955(남)
 (010)9330-3104(여)

5차원 전면학습코칭 리더십 특별과정
 31기: 7.29(월)~31(수), 월막피정의집
 대상: 초·중·고대생(선착순 30명)
 참가비: 28만 원(전화 신청)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마음으로 책임기에 초대합니다
 일자: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간: 18:30~20:30(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대상: 남, 여(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오순절평화희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010)5529-3186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8.23(금)~9.2(월), 10박 11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3개국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 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인공신장실 아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권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SM 수맥흡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허리 아프고 무릎 아를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 이 판 계(루가)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척추·관절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태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재거리 ☎ 053)628-4111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5(월)~7(수)
 중3~고2: 8.7(수)~9(금)
 장소: 마산 가톨릭교육관
 고3·대학·일반: 8.12(월)~14(수)
 장소: 한티 피정의 집
 ※ 중1~고2는 등록생 중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신청: 각 분당 사무실, 마감 7.21(일)

교육 | 모집

청소년 문학캠프-여름 엠마우스

기간: 7.26(금)~28(일), 2박 3일
 장소: 밀양영화학교(가톨릭문인회 주관)
 회비: 3만 원, 7.22(월)까지(종교무관)
 내용: 강의, 습작, 발표, 체험 등
 문의: 총무, (010)8319-2119

2대리구 렉시오디비나 교육

개강: 9.2(월) 10:30반 / 19:30반
 장소: 수성성당 교육관
 강사: 2대리구주교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대상: 전신자(선착순 60명)
 문의: 2대리구 사무실, 743-7010

대구대교구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여름 캠프
 기간: 8.5(월)~8(목), 3박 4일
 장소: 경북 영천 산자연학교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초·중고
 문의: (054)338-0530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성령봉사회 2박3일 성령세미나

일반: 7.26(금)~28(일), 12만 원
 청년: 8.2(금)~4(일), 8만원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
 문의: (054)954-0951 / (010)4419-1220
 젊은이성령기도회, (010)5585-9053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신자
 내용: 매달 친교모임 및 소공동체
 중국어(성경반, 회화반, 전례반)
 중국(비즈니스반, 문화교류반 등)
 문의: (011)808-8018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7.22(월)부터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 남녀
 문의: 476-3100

애니어그램 교육

1단계: 8주 16시간
 일시: 8.28(수) 19:00 / 29(목) 10:00
 문의: 샬트르수녀회, 254-2664
 659-3455~6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생활일본어,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대금, 리본공예, 켈트,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문의: 476-6211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 여학연수

2차: 8.25(일), 8, 12주
 3차: 9.22(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채용 | 안내

성 바오로 안나의 집 조리원 채용

대상: 40대~50대(여)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타: 출퇴근 우선(주거 가능함)
 문의: (054)382-1634

카리타스무지개사업단 팀장 채용

분야: 사회복지사 팀장 1명
 (다문화가족, 사회적기업사업)
 자격: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경력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621-2025 / 마감: 7.29(월)

팔공컨트리클럽 직원 채용

부서: 총무과(남) 1명
 문의: 총무과, 982-8080(교환278)
 기타: 홀서빙(남·여) 0명, 주방 0명
 문의: (주)미향, (010)5262-8900
 palgong-cc.co.kr 참조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공중구매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사)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합격기(바오로) 011-514-3855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미래필름
 건축용 열차단 / 차폐필름
 안전필름 / 방범필름 / 각종시트지
 나노윈도우필름 대구경북 총판
 홈페이지 : www.nwf.co.kr
 박시연 (마레오), 서문숙 (로사리아)
 전화문의 : 010-3374-3984
 * 필름조성물에 의한 국제특허 2건, 국내특허 1건 보유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전액 후불제 장례서비스
A 아진장례서비스
 아름다운 사람들-
 가족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상담 1577-3182
 010-3532-7401 이재성 (사도요한)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상위 1%의 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동기, 공부방법, 노트필기, 교과서적용, 학습플래너)
 학습코칭반 / 글분석반 / 다중지능검사
 ☎ 752-0966 (윤종선 가빌로)
 수성구청역 2번 출구 KBS 앞